

교회 목표

신실한 예배
천국인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가정

주관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헌교회

THE WEEKLY CHONGHYUN

발행인: 김경찬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개여,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집회)

성육신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가!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질문은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이 역사 속에서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의 말씀을 지키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실제로 창조하시고 메시아를 과연 왕위에 위임하셨는가? 아니면 선지자들은 단순히 환상을 보는 사람들로서 역사는 상관없는 설교를 한 것일까? 사실 삼 성경의 내용과 역사상의 사건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는 질문이다. 역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으며 하나님은 결코 패배를 당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우리의 신앙의 전체적인 기초는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은 궁극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과 같은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상에서 여러가지 희가가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아들이 세상에 임하실 때 미리 댁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드리는 말씀에서 그 오시는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요 10:5-7; 시 40:6-8). 신약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죄악과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특히 그의 성육신하심과 죽음과 부활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바울은 이슬라리의 불손으로 인한 저주, 율법의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임할 것을 설명한다(골 3:13).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하심 그 몸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배후신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고후 5:20). 인류의 범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대가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골 6:23). 우리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사건이 전개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상의 찬란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다.

성경은 영원부터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사실을 복잡하지 않게 단순한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요 8:58). 예수님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요 17:5).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자발적으로 오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빌 2:6-8).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말씀하고 있다(마 5:2). 요한은 신학적으로 표현한다(요 1:14). 태초로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온 만물이 만들어진

바가 되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제 이 생명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신 것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요 1:1-5). 영원부터 계신 말씀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시고, 그의 천지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신 것이다. 이를 위해 놀라운 값을 치러 주셨다(고후 5:14). 그는 땅 아래로 내려가셨다(골 4:9-10).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그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 하셨다.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참여함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의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에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정당성에서 은총의 사람이 혜택을 입을 것은 분명하다(골 5:18-19).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가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후 8:9).

인간 구원의 역사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그의 오심을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서 예언과 기가 계속 나타난 현실이며, 그가 세상에 오신 후에 일어난 일들은 모두가 그의 이름 안에서 완전하게 끝나는 것이다(골 1:26-27). 프리즘의 빛의 색은 총천연색이다. 그러나 이 색의 원천이 같은 빛인 것처럼 계시의 역사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거기에 한결같은 삶의 원칙이 있는 것이다(골 2:2-3). 이 땅에서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사의 사역은 세상에 마무려 놓는 전환점이 되었고, 그 개인의 삶은 인류 역사 전체를 그 안에 담은 것이다. 이제 골고다 언덕과 함께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영원토록 모든 것들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마 2:10). 그곳은 모든 사방의 극치의 전환점이다(마 3:16-17). 모든 구원의 시작이 되는 전환점이다(요 3:36). 모든 경배와 찬양의 중심이 될 것이다(마 5:13).

성육신! 그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한 이 비밀은 영원히 해이라 알 수 없는 신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이적 그 자체이신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아직도 “지간”을 깨달아 알 수 없으며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힘으로 영원 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반되는 두 신비가 교차점을 이룬, 유한함과 무한함이 만만히 성육신의 수수께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오직 우리에게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라는 고백이 있을 뿐이다(요 1:17-18).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 2:10)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하여 베들레헴 성내에 가옵시다”(창 122장). 이미 우리는 오래 전부터 성탄 찬양을 통해서 구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여 왔습니다. 또한 몇 주 전부터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은총의 구주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쁨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눅 2:14). 무엇보다도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화려한 성탄을 즐기는 것이 초라하지만 참 생명이 있는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께 나아와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마 2:11). 이에 교회는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특별찬양과 성탄 가족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에 은총을 입은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성탄 축하 찬양의 밤

일시 : 12월 20일(화) 저녁 7시

장소 : 갈릴리움

주관 : 제1교육위원회, 사랑부, 에바다부

메시야 찬양

일시 : 12월 23일 금요일 집회 시

장소 : 본당

주관 : 찬양위원회(연말찬양대)

성탄예배 및 가족연합예배

일시 : 12월 25일 주일예배 시(2-3부는 가족 연합예배)

*영아, 유아, 유아부는 자체 예배

한 영혼을 위한 사랑

“새가족 등록에 관해 알립니다!”

많은 새가족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총입니다(행 4:33). 그러나 등록을 신청한 분 가운데 부득이한 이유로 본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이 안되는 분이 계십니다. 1. 다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판단되는 사별입니다. 2. 실제 인도자가 아닌데 등록을 신청하거나 이미 등록이 된 사별입니다. 3. 추후 새가족실 친화 성향 시 인도자가 다르다는 사실과 다른 목적으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사별입니다.

특히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한 달 후 교회 출석은 확인되지 않을 때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새가족실에서는 등록된 새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전화와 심방을 통해서 가능한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등록 취소에 관한 방침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새가족 등록과 양육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새가족 등록실(내선 2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IRACLE NIGHT

⁽¹⁾Now it came about in those days that a decree went out from Caesar Augustus, that a census be taken of all the inhabited earth. ⁽²⁾This was the first census taken while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 ... ⁽¹⁴⁾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 ⁽²⁰⁾And the shepherds went back,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at they had heard and seen, just as had been told them. (Luke 2:1-20)

As the world awaited the birth of the King of kings, the whole of heaven focused on a small region in Judea. The greatest and most mysterious event was about to take place there. God Almighty and Eternal was coming into the world through the Virgin Mary in the little city of Bethlehem. His birth would open the door of salvation to the whole world. The unfolding of His salvation plan, most especially His incarnation, was something the angels longed to look into. For this miracle night, God arranged a spectacular drama that included many performers.

The world's political leader, Caesar Augustus, had ordered a census of "all the inhabited earth" (v. 1). Everyone had to register in his own city. Joseph, "along with Mary, who was engaged to him, and was with child", was required to go to "the city of David which is called Bethlehem, because he was of the house and family of David" (vv. 4&5). This particular town exactly fulfilled the Old Testament prophecy concerning the Messiah's birthplace (Mi. 5:2). The Roman government played a role in God's miracle night.

Joseph, son of David, lived in the region of Galilee, in the city of Nazareth. He and his fiancée, Mary, had to travel a long distance to reach Bethlehem. It was not an easy journey. The land of Judea was mostly hill country, and Mary was in her last trimester. The donkey ride had to be very difficult and uncomfortable. God chose Mary, a virgin, to conceive Jesus through the Holy Spirit. Her engagement to Joseph was very important because he was a son of David, and Jesus needed to be born as the Son of David. God arranged for Joseph and Mary to come together for His miracle night.

As Mary and Joseph approached Bethlehem, praising God for His great care and love, Mary's birth pains began. They tried to find shelter in an inn, but there was no room because of the census. Her contractions intensified, so that they had no choice but to take refuge in a stable. The Savior of the world was ready to be born, "But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the Law, so that He might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as sons. Because you are sons, God has sent forth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crying, 'Abba! Father!'" (Gal. 4:4-6). Oh, what a blessing moment it was when Jesus arrived! He made it possible for us to become God's children, born agai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Jn. 1:13).

Over two thousand years before Jesus' birth, God promised Abraham, "In your see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because you have obeyed My voice" (Gn. 22:18). God fulfilled this promise in the coming of Jesus Christ, Abraham's seed. God called Abraham to leave his country and family and to follow Him to a new land. Abraham listened to the Lord's direction, just like the Virgin Mary who knew she had to go to Bethlehem because she was carrying the Messiah. She and Joseph were aware of Scripture; they knew Jesus needed to be born in Bethlehem. Together, their hearts quietly praised the Lord God, even though their travels were a heavy burden, like Abraham. God directed him to "Go forth from your country, and from your relatives and from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which I will show you" (Gn. 12:1). Faith carried Abraham just as it moved Joseph and Mary. God used Abraham in preparation for His miracle night.

The angels and saints watched the Son of God come into this world from

heaven. They praised and welcomed Him with great joy. They smiled at all the people moving around below, most unaware of God's miracle night. Gabriel told the shepherds in the field, "Do not be afraid;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which will be for all the people; for today in the city of David there has been born for you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vv. 10&11). Even before His birth, Gabriel shared the good news with Zacharias, Mary, and Joseph. He wanted the shepherds to know that Christ the Lord was now in Bethlehem. Bethlehem was a special place where Samuel anointed King David, Ruth met Boaz, Jacob's wife, Rachel, was entombed, and now the appearing of many angels. On that miracle night, there appeared with Gabri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v. 13). The heavenly choir was sing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v. 14). The angels had many parts in the production of God's miracle night.

After listening to the angels, the shepherds wanted to see the miracle that the Lord God made known to them (v. 15). The Bible tells us, "So they came in a hurry and found their way to Mary and Joseph, and the baby as He lay in the manger. When they had seen this, they made known the statement which had been told them about this Child. And all who heard it wondered at the things which were told them by the shepherd. But Mary treasured all these things, pondering them in her heart. The shepherds went back,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at they had heard and seen, just as had been told them" (vv. 16-20). God chose the shepherds as witnesses to His miracle night.

As baby Jesus lay asleep in the manger, the world's top Bible scholars were asleep in their beds, but the Eastern wise men were following the Messiah's star. They had traveled a great distance to come and worship Jesus. They left their families and homes, and took great risks to find the King of kings. They brought special gifts to give Him. God allowed these Gentiles to witness His miracle.

The miracle night of Jesus' birth was a humbling experience. The Lord of lords left His heavenly throne to come down into a lowly manger. John 1:10&11 tells us, "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and the world did not know Him. He came to His own, and those who were His own did not receive Him." The world allowed the Messiah to be wrapped in cloths and placed in a smelly manger, not clothed in silk and placed upon a perfumed throne (v. 7). He came to save the world, but the world did not welcome Him,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Jn. 1:12). All the angels and saints worshipped His birth, but only a few humans received Him. The world in general did not welcome Him, but permitted Him to lie down next to barn animals. Who could have imagined such a humble entrance?

My dear friend, Jesus was born in Bethlehem on a miraculous night. This Christmas story changed the world forever. Angels and saints in heaven and angels on earth rejoiced at His coming. Mary and Joseph, the shepherds, and eastern magi witnessed God's amazing love, and praised Him for His grace. It was a real life drama beyond imagination. Have you celebrated this miracle night? Have you welcomed Jesus into your heart and home this Christmas season? 

다음 주일 설교

기적의 밤



김성호 목사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누가복음 2:1-20)

온 세상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늘의 모든 관심도 유대의 한 작은 마을에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 나려고 합니다. 진중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주께서 베들레헤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제 막 세상에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 특별히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모습은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장엄한 드라마를 기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당시 최고의 정치 권력자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11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해야 했습니다. 요세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베들레헤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야 했습니다(4절). 이 때 그와 정혼한 마리아도 동행했는데 그녀는 이미 아이를 가진 몸이었습니다(6절). 베들레헤이라는 이 특별한 장소는 메시아 탄생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정확히 성취시켰습니다(미 5:2). 로마 정부는 하나님께 계획하신 기적의 밤을 이루는데 필요한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세프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세프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약혼녀 마리아는 베들레헤까지 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은 대부분 언덕이 많았고, 마리아는 이미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매우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인 마리아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세프의 정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세프는 다윗의 자손이었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밤을 이루기 위해 요세프와 마리아의 결혼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요세프와 마리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을 찬양하며 베들레헤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머물 곳을 찾고있던 예외적인 호구 조자 때문에 여관은 이미 꽉 찼었습니다. 마리아는 진통이 점점 더 심해지는 바람에 마구간에서라도 숨을 돌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때는 온 세상의 구주께가 막 태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차마 하나님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4-6).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디라. 이 얼마나 축복된 순간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락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로 1:13).

아브라함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 천 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 22:18).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셨을 때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와 친척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에 베들레헤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던 동정녀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세프는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인 베들레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여정도 무척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용히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것처럼, 믿음이 요세프와 마리아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의 밤을 준비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사하셨습니다.

천사들

하늘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기꺼이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밤을 베푸신 것도 모른 채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들에 있던 목자들을 찾아가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1:11). 가브리엘은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사가랴, 마리아, 요세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베들레헤에 있다는 사실을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베들레헤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은 다윗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롯은 보아스를 만났으며, 야곱의 아내 라헬은 땅에 묻혔습니다. 지금 그곳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의 밤에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나타난 허다한 천군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4절). 천사들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기적의 밤에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목자들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15절).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세프 구유에 누운 아이를 찾아보고 보아사 자기들에게 이 아이가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는 자기가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16-20절). 하나님은 목자들을 이 기적의 밤의 목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누운 잠이 들었을 때, 세상의 최고 성경학자들은 자신들의 침상에서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때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마나인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과 짐을 뒤에 남겨둔 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만왕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특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말기유에 나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기적의 밤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천한 말기유에서 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10,11은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랴. 세상은 메시아에게서 비단옷을 입혀 형기로은 보좌에 놓히기는커녕 강보에 싸서 밭새나 말기유에 눕혀 놓았습니다(7절).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세상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로 1:12). 모든 천사와 성도들이 주님의 탄생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마구간 동물 곁에 눕혀 놓았습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의 밤에 예수님이 베들레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세상의 운명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늘과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마리아, 요세프, 목자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목격했고 그의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적의 밤을 축하하는 행렬에 속해 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반갑게 맞이하십니까?

수요1부 예배 메시지

그리스도의 탄생 (마 1:23-25)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의 신앙과 삶 속에 새겨 믿고 있는지 살펴보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천사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깨우쳐 주고 있다.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모든 구약성경은 이것을 예언하였고 신약성경은 이것을 선포하였다.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처녀의 탄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우리는 이 말씀을 진실로 믿어야 한다.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아담나쁜 것만을 말하게 된다. 성경의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만들게 된다(창 32:23).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다(창 3:15). 그리고 이 말씀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눅 1:34, 37-38, 마 1:20).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마 1:25). 바울도 처녀의 탄생을 증언하였다.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갈 4:4).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자기를 부인하고 으면 영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 복음을 알았음에도 율법에 매여 있던 갈라디야 교회를 향해 바울은 말한다. "어리석도나 갈라디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나"(갈 3:1).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받을지어다"(갈 1:8). 온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다. 처녀를 통한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신앙의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처녀를 통한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루어졌다.

처녀로 인한 메시아의 탄생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이 말씀을 믿는가? 또한 홍해가 갈라졌음을 믿는가?(출 14:22)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믿는가?(출 17:6)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

의 한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이 사십 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으니라 하겠다 하라 하시기로"(신 2:7).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우리도 기적을 믿는 믿음에 있어야 한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다면 우리는 진실로 회개해야 한다. 오만하며, 물 위를 걸으며 풍광을 잔잔케 하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믿으라. 메시아 탄생의 기적을 믿으라.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기쁨이 생겼으나, 모든 걱정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받아들인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전 2:14).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처녀의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수 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고전 2:15).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참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영원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한다. 기적의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증거 하라고 하였다. "가되 주 예수 믿으라 우리도 그러하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행 16:31).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죄인으로서 구주로 나오라"는 의미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처녀의 몸을 통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녀를 통한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루어졌다. 또한 이 놀라운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시공간에서 벗어난 영원의 자녀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화려한 왕궁이 아닌 낮고 천한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앞으로 나가야 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 없이 바치네. 겸손하게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찬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 낮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 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찬 121장).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곳곳에 성탄 장식과 세일 현수막이 우리보다 더 재빠르게 성탄을 알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좋은 사설의 최고급 분말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이다. 하나님이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다.

막연하게나마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 장식과 선물을 말하면 준수에게 물었다. 예수님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드릴 거냐고 했더니, 착한 마음과 사랑을 드렸단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깨닫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께 고하고 싶다. 일 년 내내 가족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한다는 어떤 할미가 복득 생각난다. 비록 늦었지만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더욱 기도하며 기쁨을 경험하는 뜻깊은 성탄이 되길 바란다. 박희정(유치부 김준수 엄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린다.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대하거나, 즐거워 노는 날로 생각하는 등, 크리스마스가 너무 세상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 오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을 전혀 알지 못했던 동방박사들은 오직 별만을 보고 믿음으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메시아가 나실 것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결코 믿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던 동방박사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한다.



모이기에 힘쓰는 2006년!



김은호 (전로, 교구위원장)

이미 시작된 2006년

금년에는 모든 일이 앞당겨 진행되어 이미 2006년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구도 모든 조직을 완벽하고 각 교구마다 새롭게 새 사람들로 시작되어 한결 활기찬 모습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성탄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일이라든지, 또한 최근에는 환자들을 위한 전 교인의 기도로 금요일 집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매 주일 4부 예배 후에 모이는 교구 모임은 각 교구마다 특색 있는 모임 시간으로 발전되어 교회의 일꾼들이라면 반드시 교구 모임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각 교구 내 지역별로 단기 선교팀을 구성함으로써 단기선교뿐만 아니라 교구 활성화와 팀장으로 수고하는 안수집사 지역장들의 형성 회복 및 지도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각 교구는 교회의 1번 계획표에 맞추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자원봉사, 식당 봉사, 교구 영성훈련, 교구 기도회, 연말 불우이웃 돕기 등과 같은 교회 행사나 일들이 교구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교구마다 주일 교구 모임을 끈끈하고 밀도 있게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교구위원회에서 금년에 중점을 두고 행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교회의 모든 모임에 앞장서려는 것입니다. 특히 교구 식구 중 주일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들, 교회의 일꾼으로 제직이면서도 금요일집회에 안 나오거나 전도회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봉사부서에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 본 교회 제직의 자녀로서 교회학교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피며 지속적인 살방을 하려 합니다. 특히 영적인 은총이 살아 있는 금요일집회에 더 많은 교구 식구들이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1명 전도에 맞추어 1차적으로 가족 내에 불신 가족들과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아 전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모임 중 주일 교구모임, 남성 구역모임, 금요일집회, 단기선교 등에 남성도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려 합니다. 실제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남성도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면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들이 146개 지역의 지역장을 맡고, 교회학교 부장, 찬양대 부대장, 각 위원회 실행 차장들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더욱더 많은 서리집사들과 남성도들도 참여하여 이러한 좋은 점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매일 회개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자

교구가 전 교회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교구위원회가 교회 전체를 끌고 가는 조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잘 돌보며 그들이 교회 내의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교회를 섬기도록 협력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선교, 전도, 봉사 등의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교구위원회로 자라매길하겠습니다. 각 교구는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로 구성되어있기에 마치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들로 조직되어 각 세포가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함으로써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 온전하고 건강한 생명체가 살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각 교구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칠 때 온 교회가 생동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각 교구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정작 우리들은 매우 연약한 죄인임을 절감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아뢰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4:17). 매 주일 교구 모임이 참으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복음의 은총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구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권사 칼럼

토기장이신 주님이 만드신 그릇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년수가 침침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나이 칠십, 이제 은퇴를 앞두고 뒤를 돌아보니 나 행한 것 죄 뿐이요 후회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돌보아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거듭거듭 감사할 뿐입니다. 충무로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이제 역삼동에 우뚝 서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에서 평신도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은 기쁨을 넘어서 감격을 느끼게 합니다. 1967년 집사 임명을 받고 17년을 서리집사로, 1985년 권사임직을 받고 20년의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편으로 젊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좀더 겸손히 섬기지 못한 것, 시간을 아끼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인생이 길다고요?' 아닙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주님

의 선택에 의해 자음받은 그릇입니다. 그 안에 왕게 드리는 맛있는 음식을 담은 그릇이든, 한 구석에 놓고 오물을 담은 그릇이든 그것은 오직 우리를 빛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담은 그릇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만 감사함으로 순종할 뿐입니다(엡 2:10). 토기장이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흙덩어리일 뿐 그 어떤 그릇조차 될 수 없으니까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 세월은 살같이 흐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찬송 부르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남은 삶 동안에 정말 없던지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와 도구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김석윤 (은퇴권사)

날 짜	행 사 명	주관부서	날 짜	행 사 명	주관부서	날 짜	행 사 명	주관부서
1월	겨울성경학교, 겨울수련회 (1월, 2월) 경로심방 (1월, 2월) 단기선교팀 파송 신년감사예배(가족연합예배 2, 3부) 제1차 성찬식 헌신예배(예배위원회) 정기당회 선교주일	교육위원회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선교위원회	5월	대심방 (3월~6월) 단기선교팀 파송 제4차 성찬식 어버이·어린이 주일 (가족 연합예배) 헌신예배(교구위원회 1) 정기당회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당회서기	9월	헌신예배(찬양위원회) 정기당회 수요성경공부 2학기 개강 (11/21 종강) 충원전도대 훈련 (후반기) (10/25 종강) 남성구역장 훈련(11/21 종강) 제64기 교사양성부 개강 (11/26 종강) 제34기 찬양대양성부 개강 (11/26 종강)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교육훈련원 전도훈련원 교육훈련원 교육훈련원 교육훈련원 당회서기
2월	겨울성경학교, 겨울수련회 (1월, 2월) 전반기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경로심방 (1월, 2월) 단기선교팀 파송 헌신예배 (전도위원회) 정기당회 제1차 청지기훈련 제1차 학습세례식	교육위원회 충원장학회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교육훈련원 예배위원회	6월	대심방 (3월~6월) 단기선교팀 파송 오순절 (성령강림주일) 헌신예배 (안수집사회) 정기당회 제직회 계절학교 교사 강습회 (2회) 제2차 청지기 훈련 제3차 학습세례식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당회서기 제1·2교구위원회 교육훈련원 예배위원회	10월	대심방 (9월~11월) 단기선교팀 파송 헌신예배 (교구위원회 2) 정기당회 피택장로 (주제발표) 제5차 학습세례식 장로·집사·권사 임직예배 제3차 청지기훈련 종교개혁주일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당회 교육훈련원 예배위원회
3월	대심방 (3월~6월) 단기선교팀 파송 사순절 새벽기도 시작(제의 수요일) 제2차 성찬식 헌신예배(선교위원회) 정기당회 충원전도대 훈련(전반기) (4/26 종강) 남성구역장 훈련 (5/24 종강) 제63기 교사양성부 개강 (5/28 종강) 제33기 찬양대양성부 개강 (5/28 종강) 수요성경공부 1학기 개강 (5/30 종강) 임시당회(일꾼추진·장로, 안수집사, 권사) 일꾼후보공고(주2종훈련) 공동의회(일꾼후보·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교위원회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전도훈련원 교육훈련원 교육훈련원 교육훈련원 당회서기 인사위원회 당회서기	7월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7월, 8월) 단기선교팀 파송 제5차 성찬식 백수감사주일 헌신예배 (권사회) 정기당회	교육위원회/각 기관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11월	신년도 예산안 심의 신년도 직분자 심의 대심방 (9월~11월) 단기선교팀 파송 제7차 성찬식 헌신예배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정기당회 추수감사주일(가족연합예배 2, 3부) 추수감사주일 특별찬양예배	위원장협의회 인사위원회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4월	대심방 (3월~6월) 단기선교팀 파송 피택자 교육개강 (9/30 종강) 헌신예배(1·2·3 교구위원회) 정기당회 종려주일(가족연합예배 2, 3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성 금요일 집회(제3차 성찬식) 부활주일 부활주일 특별 찬양예배 제2차 학습세례식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훈련원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8월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7월, 8월) 단기선교팀 파송 후반기 장학생 선발 및 지급 헌신예배 (선교위원회 2) 정기당회 제4차 학습세례식	교육위원회/각 기관 선교위원회 충원장학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12월	절기구제(성탄) 단기선교팀 파송 정기당회 임시당회 (결산/예산) 특별제직회 (결산/예산) 회차 시상 성탄축하 찬양의 밤 성탄축하 특별찬양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 (결산/예산) 성탄절 감사예배	봉사위원회 선교위원회 당회서기 당회서기 당회서기 인사·행정위원회 제1·3교구위원회 찬양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유아부팀 선교후기

바람막을 것조차 없는 허술한 천막 안에서, 25세의 젊은 청년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가 급박하여 우리를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아늑한 말과 손짓으로 전했을 때 힘없이 누워 있던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곳은 따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김정희 권사)

내가 가려고만 하면 언제든 갈 수 있는 선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옥자 집사)

어디에 있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었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역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났고 성령님은 일하셨습니다. (노재희 집사)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심을 확신했습니다.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조옥련 집사)

공동묘지 앞 천막에서 한 청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임을 그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읽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와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매일 찬송과 기도로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전국수 집사)

만났던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어린이들이 더욱더 맑고 예뻐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순수한 아이들, 천막집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과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고 저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나서 천국의 귀한 일꾼들로 온전히 곱게 자라길 기도 드리며, 우리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윤순주 집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에 접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서는 제 마음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허락하시고 여건을 조금씩 움직여 주셨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참 감사함에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가슴 속 깊이 느끼고 주님 앞에 더욱 견고하고 담대하게 바로 서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현진숙 집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금요일이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금요일교회로 향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영혼이 주를 만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은혜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내 마음을 한 편에 무언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결코 흔들리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주시면 이제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교만이 내 속에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요일교회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깨달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내가 무한한 주님의 능력과 은총의 비밀을 제한하려 했음을 회개했다.

인간의 머리로만 헤아릴 수 없는 그 구원의 손길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명백한 방법임을 알려 주셨다. 그 후로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란 속에 사는 하늘에 속한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미려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1:25). 출퇴근길에 버스를 타고 한강을 지날 때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이 절로 나왔다. 말씀을 깨닫은 후로는 굳이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공중 나는 새를 보며 그리고 강가에 들꽃을 보며 주님의 섬세하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할 뿐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란대 주께서 저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란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시 144:3).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Amazing Grace, 은총의 삶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말씀을 통하여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한다.

"주 십자가에 달리자 내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혜선(대학부)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108장 구주 탄생하심을

지난 여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다시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함께 한 팀원들 모두가 찬양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분들이었다. 그래서 사역지로 이동할 때마다 차 안에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 사역지로 이동하면서 어느 때처럼 찬양을 하였다. 마침 그 날이 금요일이어서 '저금 교회에서는 금요일교회 시간이었구나! 위임 목사님이 성탄 찬양을 인도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탄 찬양을 하였다.

"구주 탄생하기를 천사 찬양으로 만민에게 고하니 어둠같이 밝았네. 탄생하기 이르러 자비하신 주께서 하늘보좌 떠나사 구유 안에 누웠네" '저금' 돌이켜보면 아기 예수를 모르는 척박한 땅에서 성탄절 기간이 아닌 무더위의 8월에 달리는 차 안에서 불꽃만 성탄 찬양을 잇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탄 찬양을 성탄의 계절에만 불렀다. 하지만 올해 금요일교회 때마다 위임 목사님께서 성탄 찬양을 인도하시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 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왕의 탄생 하심을 목자들이 보고서 들은 소식 즐거워 영광 돌려 보냈네"**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 죄악 많으니 탄생하신 우리 주 모두 덮어 주시니 자유함을 얻었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다. 우리의 찬양으로 구주 탄생하심을 전파하여 아기 예수를 모르는 척박한 땅에 아들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평화의 왕 나시니 목자들이 우리도 구주 찾아 뵈옵고 기쁜 찬송 부르네"**

정희희 (집사, 할렐루야 찬양대)

새 · 가 · 족 · 을 · 잘 · 영 · 입 · 나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003	김혜순	6 장년부	김덕희(1)	3020	최수영	19 외선부	윤효남(2)
3004	고경자	1 장년3부	이정애(4)	3021	이현철	19 외선부	이수재(1)
3005	신혜림	19 중동2부	김남희(8)	3022	장민경	6 외선부	이진규(9)
3006	문정찬	13 예배다부	최은경(16)	3023	양성모	4 고동부	김영선(4)
3007	조현숙	7 장년1부	오영자(15)	3024	배선욱	19 청년1부	유미영(4)
3008	달림수배	19 외선부	유경선(7)	3025	한영래	4 장년1부	유종석(4)
3009	최경민	19 중동3부	김태석(1)	3026	정근기	19 청년1부	왕희수(17)
3010	정숙아	14 장년1부	김한선(14)	3027	서일	19 외선부	심영순(1)
3011	신철	19 외선부		3028	송영정	8 청년2부	
3012	해달수연	19 외선부	너영애(르19)	3029	세로게이	19 외선부	장선재(11)
3013	푸루에	19 외선부	너영애(르19)	3030	누르잔	19 외선부	정철재(11)
3014	김호약	19 외선부	너영애(르19)	3031	소피아	19 외선부	최대환(7)
3015	비트퍼더	19 외선부		3032	폴라	19 외선부	유선영(7)
3016	푸레크뒤레	19 외선부		3033	에르킨	19 외선부	정경수(11)
3017	토스카	19 외선부		3034	이원우	19 대학부	이현보(19)
3018	오세범	19 청년1부	이영희(15)	3035	김기수	19 대학부	김혜림(5)
3019	오연	19 외선부	김현숙(8)				

※ 중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5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 회 소 식

모임

1. 남녀전도부 전도회장 전제원례회
일시: 25일(다음 주일) 15:30
장소: 교육관 501호
2. 전교회 33회 월례회
일시: 21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칼릴리움

별 세

1. 이영남 성도(송준용 성도의 모친,
경기사 성도의 시모, 2교구 삼남
구약) / 12월 별세, 14일 장례
2. 단거주 신도(마경순 성도의 남편,
권복을 집사의 형, 15교구 신대방
1구역) / 12월 별세, 14일 장례

결 혼

1. 김의식 군(강요동 은파교회, 최태
영 권사의 아들, 12교구)과 송효
식 양(송기영 성도, 매곡장 집사
의 딸, 전주 성삼교회) / 23일(수)
13:00 칼릴리움

2006년도

사무목회자요람 발간

금주 23일(금)부터 사
무목회에 배부하오니
각 교구에서는 수령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일자: 오늘(18일)
시간: 찬양예배 후
대상: 세례교인 이상
전원

메시야
연합찬양 연수

18일(오늘) 공동의회 후
장소: 나사렛

◆전도회장사

전도위원회에서 2005년도 하반기 회계장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
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2006년 1월 19일(주일) ~ 1월 29일(주일)
대상 기간: 2005년 1월 ~ 12월
감사 장소: 전도위원회실(교육관 6층)
준비 서류: 시산표 1부, 금원출납부, 원장, 영수증실, 예금통장

◆단기교당방문권

일자: 2006년 1월 4일(화), 1월 11일(수)
시간: 2부 예배 후
장소: 본당 112호

◆단기교당1월수련회

일자: 2006년 1월 14일(토)
일시: 오전 10:00 ~ 오후 2:00
장소: 제2교육관 4층

◆2006년도 전반기 장학생 선정

1. 선별대상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3년 12월 30일 이전 등록자
②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적중인 고·대·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생
③ 공제애와 교회학교 부사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교회 각 부서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2. 선정기간 12월 25일(다음 주일) ~ 2006년 1월 8일(주일)까지
3. 문의 및 신청장소 교육관 502-552-8200(4472, 473)

◆오케스트라 대원 모집

모집 기간: 12월 25일(다음 주일)까지
문의: 찬양위원회 (4431 260번)
지적: 찬양교회 세례교인으로 악기경험 및
비전공자 중 연주 가능한 자

◆안수집사부부찬양연수

일자: 12월 25일(다음 주일)까지 오후 3:20 ~ 4:30 매주
장소: 교육관 307호

2005년도 제6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2월 18일 (오늘)	1교시 15:00~15:50	가독교개요	교육관 309호	세례단? (회생급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단? (안지환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 답	교구장 장소	문 답	교구장 장소		
12월 25일 (다음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찬양예배, 본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 바람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칼릴리움)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 바람

이벤 주 세례기도회 담당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유상태	정현민/김영주	유병희/조종민	김영훈/지규상	여국근/오순도	안창덕/이옥주	이정훈/김달자

예배담당 안내 (12/21-12/25)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12/21	수요 I	오 거룩한 밤 (초산나 찬양대)	류병희	김금숙	그 이름 예수 (마 1:21) 김성관 목사
12/21	수요 II	오 거룩한 밤 (설교안 찬양대)	이창수	김필숙	이루어진 일을 보라 (눅 21:15-20) 박인기 목사
12/23	금요일	예배사 연합찬양	김영훈	노영환	큰 기쁨의 종은 소석(눅 2:1-4) 정권호 목사
12/25	주일 I	(메시야 찬양)	이세영	최귀진	기적의 밤 (눅 21:20) 윤수인 목사
12/25	주일 II	찬사들의 노래가 외 / 금원(송주현)렐루야 오케스트라	이창수	김종구	기적의 밤 (눅 21:20) 김성관 목사
12/25	주일 III	찬사들의 노래가 외 / 금원(송주현)렐루야 오케스트라	정현민	배옥선	기적의 밤 (눅 21:20) 김성관 목사
12/25	주일 IV	저들 밤에 한 밤중에 외 / 소도라 김성자(여인 찬양대 송문스트)	최성규	안동현	기적의 밤 (눅 21:20) 정종삼 목사
12/25	주일 V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 / 별빛 여정출산(단도 구자은)	양재용	김달남	기적의 밤 (눅 21:20) 정성영 목사
12/25	주일연합	찬양 전례 중절단 / 연합 찬양대 오케스트라	조규호	전학래	목자들의 최인들께 임한 복음(마 21:10-11) 김성관 목사

12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위임목사단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지
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증하시.
- ② 충현의 모든 청지기과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지며, 자기를 부인하는 예
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 ③ 2006년도 단기선교 계획과 CMTC 훈
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
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 ④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
주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
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
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
로 세우신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
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
께서 인도하소서.

새벽에 타오르는 기도의 불길

요일	새벽 예배 담당 성도	강사
월	장로, 안수집사, 전교인 (4:50 시작)	위임목사
화	권사(1,2,3,4 지회)	부목사
수	찬양대원(오케스트라, 연주대원)	부목사
목	교회학교 교사	부목사
금	남·여 세리집사 및 권할	부목사
토	청년 1·2부, 대학부, 휴원학생	부목사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 사무장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기복현 교육부장 12월분 12월분 12월분 12월분
이 훈 남현주 김영길 김종구
12월분 12월분 12월분 12월분
이창호 차진숙 김광남 이종성
12월분 12월분 12월분 12월분
임두현 이기철 권복을 권도원
12월분 12월분 12월분 12월분
김단용 김단용 한승수 김환기
12월분 12월분 12월분 12월분
원종원 이희수 황미만 김기형
12월분 12월분 12월분 12월분
최수덕 이계인 박다연 이태태 정대우
12월분 12월분 12월분 12월분
박종규 김재현 조호환 배순진 김달남
12월분 12월분 12월분 12월분
이성호 최수환 노광현 박종규 정경길
12월분 12월분 12월분 12월분
신상수 고소호 강병현 김영은 이창호
12월분 12월분 12월분 12월분
정철환 김승문 함정주 윤세진 정선현
12월분 12월분 12월분 12월분
안석현 김건근 김광국 김광성 임창식
12월분 12월분 12월분 12월분
김은철 전학래 김진국 전계식 김광근
12월분 12월분 12월분 12월분
장승주 천은배 석영식 구재환 손두심
12월분 12월분 12월분 12월분
최자은 신진길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12월분 12월분 12월분 12월분
신장철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한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수요모임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회교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교구장회	오후 10:30	교구장회주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 예배는 소라말가미,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에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선교관 1층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지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청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청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랑 부	오후 12:15	간 릴 리 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자전 지하1층
예배마루	오전 9:00(해방) 오후 1:00(산악)	제2교육관 1층
	(주)오전 8:30~9:40 (토)오전 6:30~9:00	교육관 110호
태 아 부	오전 12:15	메 다 니 홀
	오전 12:15	메 다 니 홀
송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송현복지관
국회한국전공부	오전 11:00	아 벨 홀

- 찬양감독 강영규
■ 전일지킴이 서문성 김현섭
■ 전일침침자 김소연
■ 전일연주자 장영희
■ 선 교 사 송요한